Entertainment p/20

'연어상' 받은 한혜진의 입심

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제2628호

Entertainment p/22

싸이 노래 하나로 100억 수익

차보험 권유전화 사라진다

NEWS p/02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몰락

NEWS p/03

NEWS p/02

산타 펠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부츠세일
2012.12.3(월) ▶ 2013.1.3(목)
30% OFF ~10%

Entertainment p/20

내공 깊어져 돌아온 김아중

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제2620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2

"연기하고 싶었다" 현빈 전역

내실 주위 녹인 감동 무대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린 2012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에서 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테너 이영해(왼쪽)과 소프라노 주수연이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서보형·핵종수(라운드테이블)

짝퉁 1만원 떼기 나선 '위기의 맘'

주부들 생활고 못견뎌 가짜명품 판매…생계형 마트 좀도둑질도 급증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제품이 우르르 쏟아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정주부 A(35)씨 등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정품 시가로 150억원에 달하는 2만여 점의 짝퉁을 4년간 팔아오다가 지난달 말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달 말 충북 청주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 B(41)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아들의 빚으로 극심한 생계난을 견디다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목도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심야시간 이웃 동네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강탈했다.

장기 불황과 불안한 고용시장 탓에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벅찬 가정주부들이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A씨는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동복을 판매해 오다가 치열한 시장 경쟁과 영업 부진으로 곤경에 처하자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만원짜리 짝퉁 루이비통 가방(진품가 150만원)을 11만원에 팔아 1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한두 번 이윤을 내기 시작하자 점차 도덕 의식이 옅어져 갔다.

2009년부터 구두, 액세서리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한 A씨는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 한 채를 임대해 짝퉁 보관창고로 활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벌어들인 부당이득 2억원은 자녀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는 치밀함으로 추적을 따돌렸다.

7·9세 두 아이를 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욕심에 잘못된 길로 빠져 아이들 볼 낯이 없다"고 후회했다.

6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압수품 창고에서 직원들이 가짜 명품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에 따르면 주부 절도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지난 2006년 주부 절도범죄는 17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101건으로 82.4% 급증했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16.2%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저소득층 생활자가 40.4%에 달했다. 주요 범죄 연령대는 41~60세로 49.4%를 차지했다.

문제는 한 번 범죄의 길로 들어서면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데 있다.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28.2%는 재범이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여성 범죄 비율이 각각 28.5%, 48.1%인 점을 감안하면 생활고와 경제난이 상당 부분 여성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생계형 범죄사범 중 여성, 주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경기침체 장기화가 더욱 가혹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여성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깊어가는 불황의 그늘 속에서 자녀 양육이나 생계난에 내몰리는 주부들이 많다"며 "이들은 경력 단절에 따라 재취업이 쉽지 않고, 어렵게 잡은 일자리의 질도 현격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 범죄를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사회 안전망의 차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동호기자 elevan@metroseoul.co.kr

안철수도 유세차 탄다

대선 12일 남기고 '문재인 지원' 전격 구원등판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7일 둘의 고향인 부산에서 문 후보 유세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6일 서울 정동 한 음식점에서 안 전 후보와 단독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후보님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그 뜻을 받들어 정권교체,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후보는 "오늘이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6일 서울 정동 한 음식점에서 단독회동을 마친 뒤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후보는 첫 문 후보 지원 유세지로 부산을 찾는다. 이날 문 후보도 부산에서 유세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유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안 전 후보의 이번 결정으로 안 후보 사퇴 후 부동층으로 돌아선 지지층이 문 후보 지지로 돌아설 지 관심을 모으면서 남은 10여 일 동안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유보적이던 안 전 후보 지지층이 2.5~4%가량 문 후보 측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박 후보와 박빙의 판세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가출청소년 성매매 90% 이루어지는 곳은?

지하철역 500m 이내 집중

가출 청소년 성매매의 90%가 전철역 반경 500m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출 청소년 398명을 조사한 6일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은 각각 66명, 12명이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 5명 중 1명꼴(19.5%)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셈"이라며 "아동이 밝힌 서울지역 성매매 장소 60곳 중 54곳(90%)이 전철역 반경 500m 이내에 분포했다"고 말했다.

설문 대상 청소년이 가출 후 주로 먹고 잤던 장소로 꼽은 156곳 중 132곳(84%)이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분포했고 친구와 어울리는 장소도 절반 이상인 53%가 지하철역 근처였다.

역사별로는 안산 중앙역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신림역(16곳), 수원·부천역(10곳)·부평역(8곳)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로는 번개 및 조건만남이 53.2%로 절반 이상이었다"면서 "성매매 피해 대상이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7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오늘 '대설' 이름값… 전국 최고 7㎝ 폭설

대설(大雪)인 7일 전국에 최고 7㎝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7일 전국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의 경우 최고 7㎝의 폭설이 오겠다"고 6일 밝혔다.

또 "눈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시작해 낮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눈은 7일 오후 늦게 대부분 멎겠지만 호남지방은 밤에 눈 또는 비가 계속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남부지방 2~7㎝, 경기남부와 충청남북도 및 강원 영서·산간 1~5㎝, 서울과 경기 북부 1㎝ 안팎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부터 3일 연속으로 눈이 내리는 상황이라 빙판길과 도로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추위가 만든 작품 6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7도까지 떨어진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한 주택 처마에 고드름이 길게 달려 추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車보험 극성전화 OFF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던 "고객님 이번달 만기시네요" 마구잡이 마케팅 금지

A씨는 6년 전에 모 주유소에서 주유할인카드에 가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에 동의했다. 주유할인카드 가입서에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자동차보험 만기 때가 되면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권유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났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님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과 같은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문구를 제시한 후 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또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 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험개발원 내에 "정보 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근거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십 뒤흔드는 30캐럿 다이아 6일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명품관 상시 전시공간 하스티리스톤에서 세계에 단 하나뿐인 149억짜리 30.18캐럿 '옐로우 다이아몬드 반지'가 전시돼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지금까지 보험사는 대형마트·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정보망(보험개발원 내 구축)에서 자동차보험 만기 정보 등을 확인해 이를 텔레마케팅(TM)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김가영기자 kazyhoho@metroseoul.co.kr

근저당권 설정비 엇갈린 판결

법원 "시중은행들 반환책임 없다"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한 대출자에게 이를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6일 은행 대출자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만여 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도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7일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 약정이 시혜정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통상 대출금 1억원에 대해 약 70만원이 발생한다.

/손동대기자 grace@

대치동의 몰락

'사교육 1번지' 아파트값도 3000만원 무너져

사교육 1번지 프리미엄으로 전국 최고가를 자랑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값이 6년9개월 만에 3.3㎡당 3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6일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2985만원으로 2006년 3월 이후 6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0만원대가 무너졌다.

강남구 대치동은 2000년대 들어 2006년 말까지 학군 프리미엄과 재건축 바람으로 압구정동을 제치고 전국 최고 아파트 자리를 차지했었다. 또 대치동은 강남불패 신화를 주도하면서 2006년 1월 3.3㎡당 2687만원에서 같은 해 12월 3954만원으로 오르는 등 한 해 동안만 무려 47.15%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된 부동산 침체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며 최고가를 자랑하던 대치동은 학군 수요의 감소와 중층 재건축 및 중대형 주택시장의 불황, 도곡·역삼·반포동의 재건축 신규 랜드마크 아파트 등장이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라파엘로의 드로잉 527억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라파엘로의 드로잉 한 점이 5일 런던에서 2970만 파운드(약 527억 원)에 팔려 종이에 그린 작품 사상 최고가 경매 기록을 세웠다. 사도 두상 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당초 1000만~150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4명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당초 최고 예상가의 2배로, 한 전화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검은색 초크로 16세기에 제작된 이 작품은 29㎝×36㎝ 크기로, 라파엘로 최후의 유화 작품이자 르네상스 미술의 걸작인 '그리스도의 변용'에 나오는 인물을 그리기 위한 드로잉 습작으로 제작됐다. /AFP 연합뉴스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찰칵 무인단속

내년 5월부터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대로와 청계천로 등 자전거도로 10곳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잦은 할인도로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설치한다.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견인 시 보관료·견인료까지 더해져 과태료 부담이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무인단속 지역은 창신1동주민센터~청계천문화관 사이 청계천로 양방향, 여의대로 마포대교사거리~여의도공원앞 등 총 15곳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25> 글·그림 박상철

키케로 암살되다

기원전 43년 12월 7일 고대 로마의 웅변가이자 철학자요, 보수파 정치가인 키케로가 안토니우스의 사주로 암살되었다. 카이사르와 반목하여 공개에서 쫓겨나 은퇴해 저술에 종사했던 그는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에 안토니우스를 탄핵해 원한을 사게 되어 안토니우스의 부하에게 암살되었다. 키케로는 수사학의 대가이며 고전 라틴 산문의 창조자이자 완성자라고 불린다. 그의 철학은 절충적인 저서 도덕을 에 불과하지만 그리스 사상을 로마로 도입하고 그리스어를 번역하여 새로운 학술어를 만들어 학술로 라틴어를 사상 전달의 필수적인 무기로 삼은 큰 공적을 남겼다.

metro 사무실서 동료들과 함께 보면 더 재미있는 메트로신문

일하고 나누고 지루할 틈 없네

노후불패

④ 사회참여 제도

은퇴 이후 갑작스런 사회와의 단절로 상실감을 겪는 시니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저난 10월 열린 노인건강 생활체조 발표회에서 한 참가팀이 씩씩하고 경쾌한 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 발휘! 사회참여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영리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시민사회단체)과 연계해 참여기관에 대한 기본 교육(20시간), 현장실습(2개월)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1949~62년생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팩스 02)6203-6908, kordi2011@naver.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들의 세대 간 소통과 사회참여 경험을 돕기 위해 전국 202개의 지방문화원에서 334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한다. 각 지역별로 공예, 율동, 무용, 마을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전승을 위한 장 담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 소식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cf.or.kr)를 방문하면 된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독거노인 사랑 잇기'

정부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도 묻고 말벗도 해드리는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은 어르신들은 주 2회 이상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등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는 '사랑 잇는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월 1회 이상 집으로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청소를 해주는 봉사도 받을 수 있다. 직접 외출하는 사회참여가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독거노인 사랑 잇기'를 신청해 보자.

참여 방법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문의 02)1661-2129)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승리기자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중산층 70% 복원" "초당 드림팀 내각"

朴-文 수도권 집중공략

조카 은지원 대동한 박근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안산 중앙역 유세에서 조카인 가수 은지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섰다.

박 후보는 6일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 앞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애환을 챙기는 현장대통령이 되겠다"며 "특히 가계부채, 전셋값 등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중산층 복원 정책을 제1의 과제로 삼겠다"면서 "중산층이 더는 서민으로 떨어지지 않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범야권 대선 공조기구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 "집권하면 지역, 정파, 정당을 넘어선 초당파적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드림팀을 구성해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회동을 위해 의정부·성남 유세에 불참하긴 했지만 이후 예정된 수원역 유세 현장에는 밝은 모습으로 참석했다.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의 전폭적 지지 의사를 전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김유리기자 yuri1313@metroseoul.co.kr

'퇴직박람회' 13~15일 열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창업&프랜차이즈, 귀농·귀촌, 일자리·재취업, 금융·연금 등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 박람회 2012'(www.2nd-life.kr)가 13~15일 서울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인근 SETEC 전시장에서 열린다.

MBC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안정적인 창업 정보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보 상담 ▲퇴직 전 금융·재무관리 솔루션 ▲퇴직 후 건강·복지 정보 ▲퇴직 후 지기계발·교육 정보 및 정부지원책 ▲베이비부머 일자리·재취업 정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은퇴 관련 각종 설명회와 부대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11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다. 문의 02)569-2112 /배동호기자

새누리 "의원 정수 줄이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전격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 제안을 환영한다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실천에 옮기자"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1-1561

발행인·회장	남 공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혁
광고국장·직대	김 윤 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7100
독자센터	(02)721-9812

20's fashion Hot Street

LOTTE young PLAZA

셋 송년세일 중인
영플라자에서
퀸카 스타일로 변신!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Challenge SALE 3일 남았습니다

주말 구매고객께 사은선물 증정

20만원이상 구매시 더샘 이라피아 바디세트 증정

더 영카드 신규가입시 특별혜택 증정

2013년 롯데멤버스 다이어리 증정

SALE 하이라이트 11월 23일~12월 9일

30% H 커넥트(~20%) 20% 나이키(~10%), 흘리브랏스텁

10% 스파이시컬러, 세컨스킨, 머리스토리즈, 캉골, 쿨리어드

New OPEN 특별이벤트

「Jayho」 20만원이상 구매시 티셔츠 증정

「NBA」 프리드로우 성공시 사은선물 증정

「ASK」 전 구매고객께 캐리커처를 그려 드립니다

“방송대 스터디 함께하다 부부 됐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혜 나눔-인생 배움' 캠페인 ③ 행정학과 '온새미로' 스터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스터디 그룹인 '온새미로' 소속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19년 역사· 10~70대 정기출석 회원만 80명
현직 공무원인 선배·졸업생이 직접 후배 지도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스터디 그룹 '온새미로'.

방송대 스터디 중에서도 큰 규모인 온새미로는 역사도 길어 19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그간 스터디 멤버로 만나 결혼한 커플도 있고 서로 소개해 가족이 된 경우도 있다. 온새미로는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순우리말에서 따온 이름이다.

스터디 회장 조진호(50)씨는 "과거에는 지하 스터디룸에서 힘들게 운영했지만 동문들이 도움을 받아 지금은 학년별로 방을 하나씩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스터디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전 학년이 참여한다. 학년별로 나뉜 강의실을 이용하는데 1학년은 졸업생들이 모든 과목을 가르쳐 준다.

다른 학년은 과목별로 학술부장을 맡은 학생이 예습해 자료를 공유하거나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행정계량분석'과 같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은 공시 지원이거나 공무원인 선배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지원봉사로 강의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학우이자 스승이 되는 셈이다.

정규 스터디가 없는 날에도 삼삼오오 모여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 스터디룸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 주말에는 독서실로 활용한다.

스터디룸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회원 수는 80명 정도. 온라인 카페 회원은 130명 정도다. 스터디는 함께 공부하려고 모인 것이므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회원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천차만별이다. 전공 특성상 70% 이상이 회사원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한다.

행정학과 1학년 전세정(19)씨는 "어르신들이 부모이자 직장 상사일 텐데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젊은 층과 연령 선배인 어른들 사이에는 자연스레 멘토-멘티 관계가 형성된다"며 "또 젊은 친구들이 행사 때 솔선수범해 봉사를 하거나 PC,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 제공 등에 큰 도움을 받는다"고 칭찬했다.

/김유리기자

공직 진출·전문 자격증 취득에 유리

■ 방송대 행정학과는

조직·인사·재무·정책 등 행정학의 중심 분야와 최근의 행정학 연구 동향을 반영해 정책분석기법, 정보사회와 행정, 지방자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행정학과는 국정의 '싱크탱크' 기능 및 선도자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며 졸업 후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NGO) 등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리더십 함양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사회조사분석사·행정관리사·정책분석평가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문의 02)3668-4600
http://pa.knou.ac.kr

뻔뻔한 범인 · 황망한 부인 미국 뉴욕 맨해튼 전철역에서 한인 한기석씨를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한 나임 데이비스가 5일(현지시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왼쪽). 이날 사고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희생자 고 한기석씨의 부인 한세정씨가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든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골 말단 간부가 내연녀 셋 거느리고 · 쌍둥이 자매와 양다리 · 명품시계 매일 바꿔차고

中 탐관오리 해도 너무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가 취임 후 강력한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탐관오리 고발 열기가 뜨겁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산시성의 한 말단 마을 간부가 부인 넷과 10명의 자녀를 뒀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타이위안시의 한 촌민위원회 주임을 지낸 리젠원(43)이 정식 부인 외 3명의 부인을 더 두고 있으며 슬하에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우쑤시 공안국장이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공안국에 취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신랑 인터넷 사이트인 아신왕에는 우쑤시 공안국장 자량이 정부인 쌍둥이 자매를 조직에 들이고 공안국 예산으로 고급 아파트의 월세까지 내주고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우쑤시 공안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언급된 자매가 지난해 특채 된 사실을 확인해줬지만 공안국장과 내연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간쑤성의 성도 란저우시에서는 '시계 게이트'가 터졌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서 위안잔민 란저우 시장이 롤렉스, 오메가 등 20만 위안(약 34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손목시계 여러 개를 바꿔 차고 있다며 관련 사진도 함께 올렸다.

/조선미기자

metro Peru

5 nuevas tecnologías “verdes”

"Internet solar en colegios

Tractor solar

Jeans reciclados

metro HongKong

총기 조립법 가르치는 대학

강의실에서 총을 들고 수업을 하는 중국인 강사의 사진이 화제다. 사진 속 강사는 AK-47 자동소총과 M16 소총을 들고 당당하게 서서 수업을 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수업은 절대 졸아선 될 수 없겠다"고 농담했다. 이 사진은 최근 난징이공대 학생이 '자동무기조립' 과목 수업시간에 찍은 사진이다. 난징이공대는 학생들에게 총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해·조립법을 가르치기 위해 최근 이 수업을 개설했다. 사진에 찍힌 두(杜) 강사는 "전공 수업에 다양한 총기를 가져와 학생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한다"며 "책으로만 배우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etro Chile

칠레 최고 인기 직종은 광업

칠레 기업의 관리직 종사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분야는 '광업'으로 나타났다. 최근 칠레 컨설팅 회사 '스트라토스'가 고위 관리직 23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끌리는 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2%가 '광업 회사'라고 답해 광업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꼽혔다. 농업·요식업·소매업·IT 산업이 각각 9%를 차지하며 2위에 올랐고, 은행 등 금융권(8%)과 유통업(5%)·통신업(5%)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회사는 칠레광업진흥공사와 광업 회사 'BHP 빌리톤'이다. 응답자의 67%가 높은 평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선택 이유로 밝혔다.

페트병 8개로 만든 청바지

메트로 리마 '기상천외 친환경 제품' 소개 · 지푸라기·감자껍질로 만든 '어린이 집'도 눈길

감자 껍질로 만든 콘센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4일(현지시간) 메트로 페루 리마는 전 세계 녹색 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주제로 한 특집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지푸라기와 아세로 지은 어린이 집,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버릴 게 없는' 청바지 등 이색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했다.

◆ 태양열 노트북

삼성전자는 오는 2015년까지 아프리카 전역 2200만 명 학생들에게 '태양열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케냐·나이지리아·수단·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태양열 노트북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 만드는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지구를 살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연구소의 에너지 부서에서 바이러스에 전극을 결합시켜 생성된 전기로 액정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해하다.

◆ 태양열 트랙터

경유가 필요 없는 태양열 트랙터는 농촌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태양열 트랙터는 비싼 연료비는 물론 공해 걱정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 제품이다.

◆ 버릴 게 없는 페트병 청바지

세계적인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버릴 게 없는' 청바지를 만들었다. 청바지 한 벌을 제작하는 데 약 20%의 재활용 천과 평균 8개의 1.5ℓ 플라스틱 페트병이 사용된다.

◆ 지푸라기로 만든 어린이집

네덜란드 델프트 기술대학의 과학센터에 전시된 '어린이 집'은 친환경 재료로 지어졌다. 압축된 지푸라기와 감자 껍질 등 야채가 주재료다. 집 안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포스터들이 전시돼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Concierge privé, un touche-à-tout rech

허니문 준비 대행 아파트 대산 계약 비서 서비스 인기

잡 서서 공연 티켓 구매, 다른 나라 호텔 예약,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 구하기…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이런 일을 대신해주는 비서 한 명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직장인들의 이런 고민을 사업으로 연결한 서비스 업체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일(현지시간) 메트로 외라는 2005년부터 개인 매니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존 폴의 마리암 엥가르 매니저를 만났다.

엥가르 매니저는 "직장인들의 경우 바쁜 업무 때문에 아파트 구하기, 베이비시터 구하기, 신혼여행 준비하기 등 사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많은 직장인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존 폴의 경우 한 달에 100유로(약 14만원)에서 500유로의 가입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했던 120여 명의 직원들이 회원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

엥가르 매니저는 "24시간 내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도 있다.

엥가르 매니저는 "해외 여행을 떠나는 고객이 공항에서 지녀의 여권을 집에 놓고 왔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때 우리는 비행기 출발을 10분 미뤄 고객이 즐거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존 폴의 경우 연간 매출액은 500만 유로에 달한다. 개인 고객은 7000명 이상이고 럭시스, 프랑스철도공사(SNCF), 네슬레, 파리생제르맹FC(PSG) 등 대기업 고객도 있다.

/제고 지우스트 기자·정리=이국명기자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물건 위치 추적하는 스티커 눈길
- 멕시코 자살 25% 1~2월에 집중
- 매일 당근즙 반잔이면 피부미인

KOSPI
1932.90 · 1940.92 · 1935.18 · 1947.04 · 1948.62 (+2.58)
11/30 · 12/3 · 12/4 · 12/5 · 12/6

KOSDAQ
495.37 · 498.97 · 502.71 · 495.50 · 489.03 (-6.47)
11/30 · 12/3 · 12/4 · 12/5 · 12/6

Nikkei (일본)
9545.16 (+76.32)
Hang Seng (홍콩)
22241.81 (-21.10)
Shanghai (중국)
2029.24 (-2.67)
Dow Jones (미국)
13034.49 (+82.71)

EXCHANGE RATE

달러	1083.50
엔(100)	1314.13
유로	1413.86
위안	174.05

증권업계 혹독한 겨울

최악불황에 실적 곤두박질 탓 보너스 '제로'

올해 증권업계에는 보너스 지급이 동결되는 등 혹독한 연말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가 급감한 데다 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증권사들이 성과급 지급도 줄일 계획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급여 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개인별 성과급 외에 특별 보너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성과급도 없거나 예년과 비교하면 대폭 삭감된다.

이는 주식 거래가 급감하면서 수수료 수입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수익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리테일(소매) 부문이 완전히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의 11월 거래대금은 95조3258억원으로 10월(90조4175억원)에 이어 2개월째 100조원을 밑돌았고 하루 평균 거래금액도 4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illegible]

한국경제 경고음 삑삑

3분기 성장률 0.1%…한은 "연간 전망치 2.4% 달성 어렵다"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머물면서 정부의 올해 2.4% 경제성장률 달성이 물 건너가게 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성장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0월 내놓은 속보치(0.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9%, 2분기 0.3%로 3분기째 급감하면서 2009년 1분기(0.1%)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성장하면서 2009년 3분기(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악화된 가운데 서비스업 성장률도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어업도 부진세로 돌아섰다. 반면 건설업은 소폭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한 연 2.4%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한은 경제통계국 정영택 국장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2.7%가 돼야 하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올해 실적치가 계속 낮아지면 같은 성장 경로라도 내년에 자연스럽게 하향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보고 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2%대로 잡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자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악미의 와인창고서 나온 신의 물방울 6일 오전 [illegible] 카시예로 델 디아블로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카시예로 델 디아블로는 스페인어로 '악마의 와인창고'를 뜻하며, 지난 2011년에는 310만 케이스(3720만 병)가 판매됐다. /뉴시스

한국에서 주거행복도 가장 높은 사람은?

경북 92㎡ 아파트에 살면서 月소득 300만원 버는 40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경북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92㎡ 아파트를 소유한 월소득 300만원의 40대 가구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연구원)은 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8004가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주거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자신과 소득이 높을수록, 혼자보다는 부부와 가족이 함께 거주할 때 주거행복도가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지방(79.0%)이 수도권(73.4%)보다 주거행복도가 높았다.

전국에서 주거 행복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지역 주민의 85.1%가 현재의 주거여건에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울산과 제주 83.3%, 경북 82.4%, 충남 82.1%, 대전 80.1%이며 수도권은 서울 76.5%, 경기 76.4%, 인천 67.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박상훈기자

中企 10곳중 2곳 툭하면 임금체불

국내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임금체불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현황 및 의견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발생 빈도가 높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2.3%, 낮다는 26.7%, 보통은 51.0%였다.

임금체불 발생 빈도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24.6%)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20.3%)보다, 비제조업(30.4%)이 제조업(19.5%)보다 높았다. 매출액 규모별로 50억~99억원(33.3%) 기업이 임금체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50억원 미만(26.0%), 100억~499억원(18.4%), 500억원 이상(13.4%) 순이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이 가장 많았다. /박상훈기자

영세자영 저금리상품 대출액 77억 그쳐 부진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저금리 대출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6일 한국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대출받은 고객은 820명에 대출액도 77억원에 그쳤다. 월 2500여 명에 250억원 가량의 대출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지난달 12일 한국은행과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내놓은 '기획상품'으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8~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김자성기자

온라인 금융결제 범정부 보안대책 만든다

금융위·행안부·방통위·민간 IT 전문가 등 참여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신용카드 안전결제(ISP)의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에 구멍이 뚫리자 합동대응팀을 꾸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전자결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망라하는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합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민간 IT 전문가, 유관기관 및 업계 등을 망라해 구성된다.

합동대응팀은 ISP·안심클릭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전반적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합동대응팀이 긴급히 꾸려지게 된 것은 온라인 결제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적인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거래액은 2009년 20조6000억원, 2010년 25조2000억원, 2011년 29조1000억원 등 최근 10년간 연 24%씩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넥슨 등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비씨·KB국민카드사에서 회원 관련 부정매출사고가 발생하며 안전결제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씨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1억7200만원에 이르며 피해 카드 및 피해 건수는 230개 카드와 854건(KB국민카드 139개·400건, 비씨카드 91개·454건)에 달한다. /김자성기자

신한금융그룹

지금, 당신을 빛나게 할 황금빛 축제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와 금융우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골드바 3만개 판매돌파기념

신한은행 골든데이 이벤트

골드리슈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다양한 이벤트 참여로 푸짐한 혜택 받아가세요!

■ 기간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2월 28일(목)까지

풍성한 경품 이벤트

골드리슈 계좌 입금, 골드바 구매시 추첨을 통해 10g(2.67돈)골드바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1등 10그램 골드바 (9명)
- 2등 캡슐커피머신 (15명)
- 3등 르쿠르제 스톤미니냄비 (30명)
-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50명)

기념일 금융우대 혜택

▶ 생일이나 결혼 등 고객님의 골든데이에 계좌 스프레드 70% 우대, 골드바 스프레드 40%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 생일쿠폰 또는 청첩장(본인, 자녀 등)을 가지고 오시면 골드 매입시 각각 1인 1회 우대해 드립니다
단, 생일쿠폰은 생일 전후 1달간 유효합니다

우대기간 201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 신한아이타스

<공연의 신>

'공신' 김장훈의 1등공신 갤럭시노트Ⅱ

무대 위의 과학자. 한국 공연 기술의 지평을 바꾼 가수 김장훈을 수식하는 표현 중 하나다. 그는 날마다 무대 연출에 응용할 IT 신기술을 찾고, 재료와 장비를 사서 손수 무수한 실험을 거듭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 연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연말 공연을 앞두고 만난 그는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갤럭시 노트Ⅱ 덕분에 한층 손쉽게 새로운 시도와 창작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 서핑하다 아이디어 찾으면 즉시 S펜으로 메모… '멀티윈도우' 편리

-공연 준비는 잘 돼가나

언제나처럼 새로운 공연 기술을 선보이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매일 3시간씩 IT업계 기사를 모니터링하며 공연에 도입할 만한 신기술이 있을지 찾아보는데, 갤럭시 노트Ⅱ가 매우 유용하다. 갤럭시 노트Ⅱ에는 화면을 두 개로 분리해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이 있어서 기사를 보면서 동시에 S펜으로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 또 141mm의 넓고 시원한 화면에 디자인은 슬림해 그립감이 좋고, 무게도 가벼워 언제 어디라도 들고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하다.

-처음 갤럭시 노트Ⅱ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내몽골 사막에 다무 1만2000그루를 심었다. 사막 중심부로 들어가니 다른 스마트폰들은 모두 통화 기능이 중지됐는데 동행했던 내 스타일리스트의 갤럭시 노트Ⅱ만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때 처음 갤럭시 노트Ⅱ에 반해 사용하게 됐고 지금도 계속 반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갤럭시 노트Ⅱ S펜은 스마트폰에 마우스를 달아놓은 것처럼 편리하다. 신기술을 실험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S펜을 뽑으면 바로 메모창이 뜨는 '팝업 노트' 기능을 활용해 바로바로 기록해두고 공연 구성에 참고한다. 또 S펜을 화면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에어 뷰' 기능은 그간 남겨둔 메모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준다.

-SNS에서도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들었다

사람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짬짬이 SNS로 내 근황을 알리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지인과는 갤럭시 노트Ⅱ에서 VoLTE(LTE 음성 통화)를 사용해 한층 빠르고 생생하게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쉬움을 달랜다.

-김장훈씨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인가?

무대는 가만히 있고 관객석이 움직이면 안 되나? 조명을 위에서 쏘지 말고 밑에서 쏘면 어떨까? 이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 '역발상'이 바로 크리에이티브의 시작 아닐까.

/박상훈기자 zzn@metroseoul.co.kr

김장훈도 반한 갤럭시노트Ⅱ기능 톱3

◆ 에어 뷰(Air View) S펜을 디스플레이에 근접시키기만 해도 e메일, S플래너,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다.

◆ 멀티윈도우(Multi Window) 갤럭시 노트Ⅱ의 대화면을 크기 조절이 가능한 두 개의 화면으로 분리해 동영상, 인터넷, 사진, 메시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 최상의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한다.

◆ 팝업 노트(Popup Note) S펜을 꺼내거나 S펜의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톡톡 두 번 두드리면 메모창이 떠서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다.

LIG손보 희망서포터즈 '출동'

LIG손해보험(www.LIG.co.kr)의 공식 자문단인 'LIG희망서포터즈'가 두 번째 미션 수행에 돌입했다. LIG손해보험은 6일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LIG희망서포터즈' 제2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IG희망서포터즈'는 LIG손해보험이 지난 1월 출범시킨 고객 자문단이다. LIG손해보험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9명으로 구성된 이번 'LIG희망서포터즈'의 활동은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집중돼 있다. 활동 기간 중 다양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체험해 보면서 접수 편의성 및 다양성, 출동 신속성, 출동 직원 친절도 등 긴급출동 관련 전 프로세스에 걸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LIG희망서포터즈 2기 발대식

/김지성기자

연금복권 추첨 이젠 jtbc서 한다

연금복권 추첨방송이 5일부터 종편 채널 mbn에서 jtbc로 변경됐다. 시간도 기존보다 15분 빨라진 저녁 7시30분부터다. 한국연합복권(주)(대표 강원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복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다.

6일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75회차부터 jtbc로 추첨방송 채널이 변경됐다"며 "일반 방청객의 참여를 늘리고, 생생한 분위기 전달을 위해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해 추첨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은 수명의 연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과 갑작스러운 고액당첨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출시됐다. 총 당첨 확률도 기존 인기 복권에 비해 10배(1등 당첨 확률 2.6배)가 더 높다.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EU서 7000억 과징금 부과

LG전자 소송 맞대응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약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가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는 1996~2006년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6개 전자업체에 총 14억7000만 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자체 부과액(2억9559만7000유로·4194억원)에 필립스와의 합작사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액 중 책임분(1억9597만 유로·2780억원)을 포함하면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2001년 7월 설립한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에서 LG전자가 현재 50%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LPD 설립 당시 CRT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LPD는 2006년 파산했다.

LG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이러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 사태에 대해 삼성SDI, LG전자 주가에 단기적 악재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훈기자 zzn@metroseoul.co.kr

우리아비바생명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우리아비바생명이 5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천마음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우리금융그룹차원에서 실시하는 김장 자원봉사로 우리금융그룹 각 계열사 CEO 및 임직원이 모두 2만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아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달했다. /김지성기자

무선 주변기기, 너 잘 만났다

스마트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변 기기들이 전성기를 맞았다.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는 일반 PC에 비해 휴대성은 좋지만 성능·용량·활용 범위 등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었지만 이들 주변기기 덕에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됐다. HP 프린팅 퍼스널 시스템 그룹 잉크젯 사업부 박대창 부장은 "최근 모빌리티가 중시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기 인기를 끌면서 무선 연결로 스마트기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인기 덕 제품 수요 증가

지금까지 프린터 자리는 늘 PC 옆이었다.

무선 프린팅을 지원하는 HP 오피스젯 8600플러스 e-복합기는 이러한 프린터의 고정관념을 바꿨다. 무선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USB 없이 PC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해 출력할 수도 있다.

특히 HP 오피스젯 8600플러스 e-복합기가 탑재하는 에어 프린트 기능은 별도의 드라이버나 앱 설치 없이 무선 연결만으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원하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프린터와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만 돼 있다면 문서나 이미지를 바로 전송해 뽑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 도킹오디오 'DA-E750'은 무선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기기만 있다면 스피커를 직접 장착할 필요 없이 사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음질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유얼도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제품은 물론 애플의 아이폰에 모두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제품 상단에는 '진공관 앰프'가 장착돼 더욱 정교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나무 재질로 된 고급스러운 외관은 아날로그적 운치를 더한다.

도킹오디오 'DA-E750'

스마트기기는 작고 가벼운 만큼 PC에 비해 저장 공간이 좁다. 500GB의 넉넉한 용량을 지원하는 휴대용 무선 외장하드 씨게이트 '고플렉스 새틀라이트'는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해준다.

내장 와이파이를 갖춰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및 콘텐츠를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 무선으로 전송해 재생할 수 있어 용량이 부족한 스마트기기의 저장 공간을 확장해준다.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등의 휴대용 기기와 모두 연동할 수 있고, 업계 최초로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해 휴대가 편하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와이디온라인 '엔쭈쭈' 오픈

와이디온라인은 자사의 게임 포털명을 엔쭈쭈(www.ncucu.com)로 변경하고, 유저 편의 기능과 소통이 강화된 게임 포털로 새롭게 오픈한다.

와이디온라인은 기존 게임 포털인 엔돌핀을 운영했으나 보다 직관적인 디자인과 구성을 적용해 게임 포털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게임 포털을 기획했다. '엔쭈쭈'는 승바득잘할 때나 친한 친구를 부르는 '여기야' '안녕'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와이디온라인의 바람을 담았다.

와이파이 탑재 블랙박스 판매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업체 피타소프트(www.blackvue.com)는 10~16일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풀 HD 블랙박스 '블랙뷰 와이파이 DR500GW HD'를 예약 판매한다.

온라인 한정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예약 판매 이벤트는 정가 대비 2만원 할인, 상시 전원 장치인 파워매직프로 증정, 스마트폰 거치대 증정 등 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 진행되며 한정 수량 및 선착순 발송으로 이벤트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케이스' 나와

세화피엔씨는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케이스'를 출시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지닌 프라이버시 필름을 적용, 스마트폰에 장착하면 옆자리에서 볼 수 없다. 또 기존 플립커버케이스와 달리 커버가 닫힌 상태에서도 바로 전화를 받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프라이버시 케이스는 현재 갤럭시S3용이 출시돼 있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화피엔씨는 향후 아이폰5, 갤럭시노트2, 아이패드 미니 전용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세화피엔씨는 정보보호필름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매출의 90%가 이들 지역 수출을 통해 나온다.

/박성훈기자

올 베스트셀러 전자책 '은교'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전자책은 박범신의 소설 '은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문고가 조사해 6일 발표한 '교보문고 2012 전자책 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장르소설(40.2%)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소설 분야도 13.3%로 상승하면서 문학 분야를 합하면 판매의 절반이 넘는 56.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은 영화화로 종이책도 인기를 끌었던 '은교'였다. 스릴러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한 콘텐츠에 독자의 관심이 높았다. 또 조앤 존의 '섹스의 재발견 빛져와' E. L. 제임스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 등 성과 성애를 다룬 '19금'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다.

/박성훈기자

넥슨, 네팔에 '작은 책방' 해외 2호점 넥슨이 네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을 설립했다. 넥슨의 사회봉사단 '넥슨핸즈'가 네팔 다델두라주 산간마을에 '작은 책방' 해외 2호점을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교과서와 교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전기 사정도 좋지 않다. 이에 작은 책방은 태양열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아이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3000권 이상의 도서와 노트북, 책걸상 등을 제공했다. 넥슨은 향후 작은 책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주민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넥슨 핸즈 자원봉사자가 현지 어린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사진제공=넥슨

개성 튀고 안전성 높인 아이폰5 케이스 어때?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5가 7일 국내에 상륙하면서 아이폰 마니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긁힘에 취약하다는 평가 탓에 필수품으로 떠오른 케이스가 자칫 아이폰5 고유의 디자인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마니아들의 이런 우려를 한방에 날려버리기 위해 톡톡 튀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한 케이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벨킨이 최근 선보인 '쉴드 파스텔 케이스'는 세련된 패턴과 화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부드럽고 유연한 고광택 마감의 슬림 디자인으로 아이폰5에 완벽하게 피팅된다. 특히 카메라 렌즈 개방구를 둘레 라운딩으로 처리해 촬영 시 플래시 반사를 방지해 주는 꼼꼼함도 돋보인다.

슈피겐SGP의 '네오하이브리드EX 메탈시리즈'는 세련된 메탈 디자인이 톡톡 튀는 제품이다. 핑크, 블루, 레드 등 뛰어난 색감을 자랑한다. 충격흡수에 강한 실리콘 케이스를 기기에 감싼 후 가볍고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하드프레임을 덧씌우는 2단 구성의 범퍼 디자인도 아이폰5를 흠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준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한다면 젯썸의 '하이루 다이어리형 케이스'가 제격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인조가죽에 방색 전용인료와 젯썸만의 독자적인 염색기법을 적용시켜 명품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국명기자 kmlee@

까칠 입맛 사로잡은 화덕피자

광화문 '카페 아토' 바삭·담백 정통 이탈리아 피자 론칭…10일까지 반값 할인

서울 광화문의 커피 명소 '카페 아토(cafe ato)'가 프리미엄 이탈리아 화덕 피자를 새롭게 론칭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토가 야심차게 선보이기 시작한 피자는 화덕에서 직접 구워 바삭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얇으면서도 큰 정통 밀라노 스타일의 피자를 구워내는 둥근 화덕 또한 아토의 명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석으로 만든 화덕은 오븐으로 구운 피자가 따라오지 못할 최고의 풍미를 만들어준다.

현재 아토에서는 토마토소스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마르게리따'와 크림소스에 네 가지 치즈가 어우러진 '콰트로 포르마지', 독특한 치즈 풍미가 살아있는 '고르곤졸라', 할라피뇨와 마늘을 얹어 알싸하고 매콤한 '페칸떼', 블루베리와 과일 치즈가 상큼한 '포르마조 디 프루또' 등 16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피자 메뉴를 갖추고 있다. 아이들이 먹기 좋은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피자도 준비했다.

아토의 피자는 이탈리아 밀가루를 공수, 직접 반죽해 하루 정도 숙성시킨 도우로 만들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뛰어나다. 400도까지 오르는 뜨거운 화덕에 넣은 피자는 8초마다 익어가는 정도를 확인해가며 구워 바삭함을 최대한 살렸다.

2~3명이 즐기기 좋은 13인치 크기로 가격은 1만3500~2만6000원. 10일까지만 절반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토 피자의 명성을 만들고 있는 임승철(25) 셰프는 "기름기를 쏙 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깊은 맛이 화덕 피자의 매력"이라며 "정성까지 얹은 진정한 이탈리아식 피자의 맛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문의 02)730-4567

*Pizza Hour 오전 11시30분~오후 9시30분

진동파운데이션이 1만원 한경희뷰티 사은 대잔치

한경희뷰티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16일까지 '연말 고객감사 사은 대잔치'를 진행한다.

이 기간 '오앤 릴렉 프리 세트'와 '오앤 립 글래머 세트', '오앤 슈페리 버블 클렌저' 등 하반기 신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경희 진동파운데이션, 진동마스크, 히팅&스핀마스카라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경희 진동파운데이션 리필세트를 정상가 3만2000원에서 약 72% 할인된 1만원, 진동파운데이션 제품인 '바이브 컬렉트 세트'는 약 57%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영화 '가문의 귀환' 시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퀴즈를 맞히고 이벤트 페이지를 스크랩한 뒤 댓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90명에게 영화 시사회 티켓(1인 2장)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일. 문의 www.HAANbeauty.com

/박지원기자

비알코리아 대통령 표창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최근 제17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날 정부 포상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비알코리아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획득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알코리아의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전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를 파악하는 'VOC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에서 입소문 난 그 가게 '세븐티포' 가볼까?

부산에 웬만한 백화점보다 더 많은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보세 의류샵이 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세븐티포'가 그 주인공이다.

세븐티포는 현재 부산에 4개, 전국 13개 매장을 두고 연 60억 수준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을 만큼 내실 견고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븐티포가 보세 의류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백화점 의류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품질과 다른 가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는 강점 때문일 것이다.

세븐티포는 모든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 2011년 한국 패션 브랜드 대상 수상, KBS 의상협찬 등 이미 세븐티포의 실력과 감각은 꾸준히 인정 받아왔다.

이제 세븐티포는 국내 백화점 입점 및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보세 의류샵에서 이제는 글로벌한 브랜드로 발돋움 해나갈 계획이다.

과연 세븐티포는 어떤 옷들을 선보이고 있을까. 세븐티포가 야심차게 준비한 F/W 아우터를 만나보자.

세븐티포의 '도톰 후드 퍼딩' 점퍼는 이번 겨울을 사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부드러운 재질과 도톰한 패딩으로 보온성을 높였고 후드까지 연결된 지퍼라인 포인트가 유니크하다. 소매 끝 부분에도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밴딩처리가 되어 있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기본 테일러드 자켓도 눈여겨 볼만 하다. 모던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세븐티포 '투톤자켓'은 여기 서림이 잡혀 있어 처음 아우터웨어로도 여성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안감이 배색으로 더해져 소매를 접어 착용하면 색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

풍성한 느낌의 겨울 아우터가 싫다면 미니멀한 싱글 자켓이 좋다. '시디컬 자켓'은 도톰하고 부드러운 기모 혼방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퀄리티가 높아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다.

세븐티포 아우터를 사기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현재 티켓몬스터(www.tmon.co.kr)에서는 단독으로 세븐티포 F/W 아우터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최대 51% 할인된 가격에 세븐티포의 아우터를 만나볼 수 있다.

내겐 평범녀 캐릭터가 특별

미녀는 괴로워 로 화려하게 주연 신고식을 치른 김아중(30)이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오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성공 이후의 부담감과 혼란으로 공백은 길었지만 자기 계발로 자존·내공은 길어졌다. 6일 개봉한 19금 영화 '나의 PS 파트너'에서 보여준 화끈한 변신은 30대 질주의 시작이다.

'나의 PS 파트너'로 6년만에 영화 복귀

김·아·중

Star bag

두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

배우 쥬니가 13일 결혼한다. 예비 신랑은 두 살 연상인 서른 살의 사업가로 지난해 봄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반 동안 사랑을 키워왔다. 결혼식은 결에서 가족들과 조촐하게 치를 예정이다. 쥬니는 최근 드라마 '울랄라 부부'를 끝냈고, 19일 개봉하는 영화 '반창꼬' 홍보에 한창이다.

'천룡팔부'로 中 안방 진출

슈퍼주니어의 김기범이 드라마 '천룡팔부'로 중국 안방극장에 진출한다. 극중 대리국의 왕세자이자 무공의 고수인 단예 역을 맡았다. 현재 중국 상산에서 촬영 중인 그는 "좋은 작품과 배역을 만나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나라 주연의 '다오먼 공주'를 연출한 뢰수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중한량·종풍 등이 힘을 보탠 이 작품은 내년 하반기에 방영된다.

푸른미디어 언어상 수상

배우 한혜진이 한국여성민우회가 수여하는 푸른미디어상 언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성민우회는 6일 "'SBS 힐링캠프'에서 직재적소에 날카로운 질문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다. 또 출연자를 깎아내리거나 비속어·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피아니스트 랑랑에 극찬

가수 에일리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에게 극찬을 받았다. 두 사람은 7일 방송되는 MBC '아름다운 콘서트'에 함께 출연해 엘리샤 키스의 '이프 아이 에인 갓 유'를 선사했다. 에일리 소속사에 따르면 랑랑의 요청으로 이뤄진 무대로, 랑랑은 "에일리의 노래와 목소리에 감동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금 대사 쏟아내는 여주인공 연기 변신 실험

영화 제목의 PS는 폰섹스의 줄임말이다. 그에 걸맞게 캐릭터 설정도 야릇하다. 상대를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흐느끼지는 신음소리를 잔뜩 흘려보냈지만, 다른 남자(지성)에게 잘못 전화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여주인공 윤정을 연기했다.

그동안 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출연을 고민했을 그가 6년 만의 컴백작으로 '야한 영화'를 고른 이유는 관객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다.

"'19금 영화'라는 괜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지만, 영화 전체를 보면 알콩달콩한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과감한 변신이나 이미지 변화를 노린 것도 아니에요. 이전과 달리 평범한 여자를 연기했다는 게 오히려 제겐 특별했죠. 내 나이 또래의 보통 여자를 표현해본 적이 없어, 스스로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초반부터 뜨거운 신음소리로 요염하게 남성을 유혹하고, 취의 셔츠 와이셔츠 패션과 런제리 룩을 자유자재로 코디하는 모습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변화다.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걱정보다는 '센스를 총동원해 살~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초반에 야한 대사를 뱉을 뿐이지 그런 걸 즐기는 여자가 아닌 평범한 언걸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대사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부끄러움은 전체 리딩 때 한 번에 털어내고 적극적으로 했죠.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동료 배우나 스태프가 훨씬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자신보다 더 과감한 노출 연기를 한 신소율에 대해서는 "후배지만 배울 점이 많았고,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이야기 흐름에 도움이 되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여배우의 노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공백기 고위 띠 근 연수 "신뢰 주는 배우 될 것"

사람들과 한데 섞여 살아가는 생활을 겪지 않고는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는 걱정이 컸다. 연기 외에 삶의 다른 면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에 공백기를 더욱 분주하게 보냈다. 고려대 언론대학원 방송영상학 석사학위를 땄고, 7월 말에는 미국 뉴욕으로 혼자 어학연수를 떠나 세 달간 생활했다. 맨해튼에 집을 구하고 20분씩 걸어 어학원을 오갔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미울껏 즐겼고, 밑바닥을 다지는 마음으로 연기 수업도 다녔다.

"연기에 그렇게 많은 이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 연기를 동시에 하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연기 학습을 할 수 있었죠. '와, 나는 정말 많이 배워야겠구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일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첫 주연작인 '미녀는 괴로워'가 크게 흥행하고, 여러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손에 넣으면서 중압감이 컸다. 전작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완벽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자신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큰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실망을 시키고, 기대에 모자라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보다는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그렇지만 신뢰를 주는 배우가 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꿈의 무대’ 선 빅뱅

데뷔 3년만에 도쿄돔 공연… 관객 5만5000명 열광

빅뱅이 일본 데뷔 3년 만에 꿈의 무대인 도쿄돔에 섰다.

일본 3대 돔을 도는 콘서트 투어인 ‘빅뱅 얼라이브 투어 2012 인 재팬 스페셜 파이널 인 돔’을 진행 중인 빅뱅은 5일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도쿄돔 무대에 올라 5만5000여 관객을 열광시켰다.

빅뱅 관련 상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 일대를 에워쌌다.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임에도 장외에는 ‘티켓을 양보해 주세요’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다니는 팬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일제히 야광봉을 흔들며 거대한 황금 물결을 일으켰고, 빅뱅은 ‘투나잇’ ‘핸즈업’ ‘판타스틱베이비’ 등을 연이어 부르며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승리는 “3년 전 이 근처 도쿄 JC B홀에서 2000명을 동원하는 콘서트를 열었는데 지금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다”며 “꿈이 현실이 됐다. 빅뱅과 팬들에게 기념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빅뱅은 총 24곡을 불렀고, 뜨거운 반응에 5곡의 앙코르를 부르며 3시간 동안 도쿄돔을 흔들었다.

한편 빅뱅은 올해 초 월드투어를 시작해 미주·유럽·아시아에서 모두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일본 돔투어와 홍콩·영국 런던 공연을 마친 후 다음달 25~2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월드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유순호기자

“싸이 올해 수입은 100억원＋α”

해외 전문 조사기관들이 싸이가 ‘강남스타일’ 한 곡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AP통신은 5일 각종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 싸이의 매출이 최소 810만 달러(약 87억6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입원은 음반·음원 판매, TV 광고, 유튜브 광고 등 세 부분으로 나눴다.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수입을 평가했으며, 가장 큰 수입원인 행사·공연 매출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매출은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음반판매량 집계기관인 닐슨사운드스캔의 집계를 인용해 ‘강남스타일’이 미국에서만 290만 건의 다운로드(건당 1.29달러)를 기록했으며, 애플이 떼어가는 수수료 30%를 제외한 싸이 쪽 수익은 약 260만 달러(약 28억1000만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음원 매출은 6600만원으로 파악했다.

TV 광고 매출은 교보증권의 분석을 빌려 50억원 정도로 파악했다. 또 동영상 트래픽 조사업체인 튜브모굴에 따르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붙는 광고 수익으로 87만 달러(약 9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AP는 “싸이가 ‘원 히트 원더(히트곡이 하나뿐인 가수)’로 남느냐, 아니면 현재의 기세를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싸이가 ‘강남스타일’만으로는 영국 팝스타 아델처럼 열렬한 스타로 자리 잡기 힘들고 싸이의 미래는 후속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유순호기자 suno@

“연기 정말 하고 싶었다”

현빈 큰절로 전역인사… 팬 3만6000인분 쌀 화환 마련

배우 현빈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6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현장에 모인 1000여 명의 팬들과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벗고 큰절을 하는 것으로 전역 신고를 했다.

현빈은 “날씨도 좋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새벽부터 전역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면서 “21개월 전에 더 단단해져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해병대에 복무하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휴가 때 후배들의 연기를 지켜봤는데 이제 내게도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여러분이 기다려준 만큼 잘 준비해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겠다”고 복귀 의지를 표했다.

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으로 부모님을 들며 “오시고 싶어했는데 모시지 못했다. 빨리 집에 가서 큰절하고 인사드리려 한다”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군 생활 중 가장 통화를 많이 했던 연예인으로는 장동건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23회 해병대 군악대 정기연주회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된 걸그룹 씨스타에 대해서도 “해병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 공연을 부탁했다. 군 생활하는 동안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팬들이 현빈의 전역 기념으로 4.35톤의 쌀 화환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결식아동 3만60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의 이 쌀은 추후 현빈이 지정하는 곳으로 기부된다.

한편 지난해 초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현빈은 그해 3월 7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화제를 모았으며 백령도에서 전투병으로 복무하다가 이후 해병대 사령부로 옮겨 모병 홍보병으로 복무했다. /박잔형기자 tsk0427@metroseoul.co.kr

현빈이 6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전역 신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아 포함 16인 북극곰 살리기 화보 ●솔비 반려동물-홀몸노인 돕기 전시회

그대들이 있어 겨울이 훈훈해요

폭설 뒤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 스타들이 기부활동으로 훈훈한 연말을 만들고 있다.

김선아·이동욱·김범·박민영 등 킹콩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16명은 지구 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북극곰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제주도에 위치한 테디베어 박물관 조안베어뮤지엄과 손잡고 북극곰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화보에 쓰인 북극곰 캐릭터 인형은 조안베어뮤지엄과 인터넷 사이트 조인팩토리에서 판매되며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가수 솔비는 반려동물과 독거노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사동 코노어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배우 김승현 등과 함께 그림전시회 ‘러브+셰리시+킵 온’을 연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가 직접 디자인한 사료 용기와 기부 물품으로 제작된 자선 바자회도 함께 열리며, 수익금은 독거노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솔비는 “생명과 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더불어 추운 겨울을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용감한' 박성광

"욕심 자라 가수 흉내" '개가수' 비난에 총대

박성광이 개가수(개그맨+가수) 비난에 용감한 총대를 멨다.

6일 첫 정규앨범 'A TO Z' 발매를 끝으로 가수활동 은퇴를 선언한 '용감한 형제들'의 박성광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념 앨범처럼 만들려 했던 음원이 사랑을 받으면서 욕심이 끝없이 자라 가수 흉내를 내고 기분을 냈다"면서 "우리의 누추한 싱글이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할 때마다 가수들과 가요 관계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용감한 형제들'의 이 같은 행보는 힙합 듀오 슈프림팀의 이센스가 지난달 27일 등로 래퍼 비프리의 "개그맨들은 아이디어 없으면 꼭 힙합뮤지션을 따라한다"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솔직히 이게 X나 꼴보기 싫다"며 개가수 전체를 디스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에 가수 김장훈은 "박성광군이 가요계에 누를 끼쳐 가수들에게 미안하다는데 대중들이 음악을 통쾌하게 들으며 좋아했으면 오케이"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팬들 역시 "개가수가 안 되면 가수도 예능에 나오지 마라" "음원차트 상위권은 인지도와 노력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은퇴해선 안 된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간 '기다려 그리고 준비해' '1등 Care'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고, 음원 수익까지 고스란히 사회에 환원했던 '용감한 녀석들'의 갑작스런 은퇴에 추후 적지 않은 파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보람기자 kwon@

12월 1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Mnet M COUNTDOWN

1위 이승기 되돌리다 —

순위	가수	곡	변동
2위	양요섭	Caffeine	NEW
3위	이하이	허수아비	—
4위	에일리	보여줄게	▼
5위	주니엘	나쁜 사람	▼
6위	노을	하지 못한 말	▼
7위	김성규	60초	▼
8위	손담비	눈물이 주르륵	▼
9위	B1A4	걸어 본다	—
10위	Primary	? (물음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생방송 | MnetMcountdown | MnetMAMA

영화 '호빗' 더 생생히 보자

오늘부터 최첨단 상영버전 예매…1초당 48프레임 적용 깜빡임 적어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뜻밖의 여정'(이하 '호빗')의 개봉을 애타게 기다려온 관객들은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를 뚫고 서둘러야겠다. 13일 개봉에 앞서 7일부터 할리우드 영상 혁명의 미래를 제시하는 최첨단 상영 버전의 예매가 시작된다.

상영 버전은 하루 먼저 여미어 올 일한 2D를 비롯해 모두 5개다. 디지털 3D와 아이맥스 3D, 하이 프레임 레이트(HFR) 3D와 아이맥스 HFR 3D 등이다.

이 가운데 HFR은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1초당 48프레임을 사용한 촬영 기법이다. 1초당 24프레임인 기존의 촬영 기법에 비해 깜박임이 적어 훨씬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화질을 맛볼 수 있다.

또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를 도입해 관객들의 귀도 사로잡는다. 많게는 64개의 독립된 서라운드 스피커와 더불어 실링 스피커를 머리 위에 설치해 보다 현실적인 사운드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롯데시네마와 CGV·메가박스 등 주요 복합상영관 체인들은 '호빗'의 상영을 위해 HFR 상영관과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국내 수입과 배급을 맡은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는 "연출자인 피터 잭슨 감독이 자신의 대표작인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이어 '할리우드 영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라며 "2D도 좋지만 기왕이면 HFR 방식으로 관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영화는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한 호빗들의 위험한 여정을 그린다. '반지…'의 프리퀄이다. 3부작 중 1부에 해당되며, 2~3부는 내년 겨울과 2014년 여름에 차례로 공개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26년' 예매율 1위… 2주연속 정상 노려

5·18 유족들의 한 맺힌 복수극을 그려 상영 1주 만에 전국 관객 100만 고지를 넘은 '26년'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노린다.

6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26년'은 30.4%로 1위를 질주했다. 지성·김아중 주연의 19금 로맨틱 코미디 '나의 PS 파트너'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가디언즈'는 17.7%와 13.8%로 뒤를 이었다.

확장판으로 재개봉되는 '늑대소년'과 '브레이킹 던 part2'는 5.9%와 4.5%를 기록해 4~5위에 자리 잡았다.

6일 열린 2012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에서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멋진 협연을 선사하고 있다

꽁꽁 언 마음 사르르 녹인 겨울 선율

창간 10주년 메트로신문 송년음악회 열기 후끈 "폭발적 지휘·친절한 해설 마음까지 따뜻해져"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가 저무는 한 해의 밤에 추위로 얼어붙은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클래식 선율로 녹였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12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 스토리 인 디셈버'가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웃간의 사랑나눔,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공연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관객이 600여 석의 콘서트홀을 꽉 채운 가운데 2시간에 동안 진행됐다.

전날 내린 눈에 한파가 겹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날 공연장 만큼은 열기로 가득찼다. 귀에 익은 아름다운 클래식과 오페라 명곡 등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선율로 펼쳐졌다.

빠르고 경쾌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이 공연의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섬세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경 지휘자의 손짓 아래 오케스트라의 풍부하고 살아있는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첫 곡을 마친 후 여자경 지휘자가 "많은 정보가 있는 무료 신문 메트로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유익한 정보를 주고 오늘같은 좋은 음악회를 많이 주최하는 회사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하자 객석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기사없이 기악으로만 구성된 1부 순서를 소개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연주를 듣다보면 여러분만의 음악적 가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을 배려해 친절한 해설을 곁들였다.

다음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저음을 담당하는 더블베이스의 독주였다.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가 브루흐의 '신의 날'과 삼키의 '카르멘 주제에 의한 환상곡'으로 더블베이스의 묵직한 매력을 전하자 다시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1부가 기악으로 꾸며졌다면 2부는 전곡이 대중에게 친숙한 오페라 명곡으로 구성돼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한 푸치니의 '라보엠'이 2부의 막을 열었다. 여자경 지휘자가 이야기꾼으로 분해 줄거리를 맛깔나게 소개한 뒤 테너 이영화와 소프라노 우수연이 무대에 올랐다.

두 성악가는 '라 보엠' 중 사랑의 아리아인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오! 귀여운 소녀'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선사해 관객들을 낭만에 푹 빠지게 했다.

웅장한 선율이 인상적인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에 흐른 후 또 다시 무대에 올라 사랑의 아리아인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였던가'도 불렀다.

오페라 중에서도 부르기 쉽지 않다는 이 곡들을 음의 높낮이·강약을 자유롭게 오가는 화려한 기교와 실제 연인같은 연기력으로 선보여 객석에서 "브라보"와 같은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라 트라비아타' 중 '파리를 떠나'를 환상적인 호흡으로 무대에 펼쳐내자 관객은 그칠 줄 모르는 박수와 앵콜로 화답했다. 성악가들은 앵콜곡이 연주되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이중창을 선보였다.

여지경 지휘자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메트로신문 남궁호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관객들의 얼굴엔 들뜬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온 주부 오진순(61) 여씨는 "작은 거인같았던 지휘자의 연주가 감명 깊었다"고 말했고, 회사원 김은얼(37·여)씨는 "다른 음악회와 달리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줘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여자경(왼쪽) 지휘자가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의 협연 무대.

What's Hot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31일까지 여행업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동절기 신규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제주 체류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 2012년도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제주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제주 관광 동절기 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감귤농장 체험, 레저스포츠체험 및 특별 이벤트를 저비용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체험 관광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

리얼웨이 온라인 쇼핑몰 제로라운지(zerolounge.co.kr)에서 캐시미어 재킷을 반에 반 가격으로 선보인다. '캐시미어 100% 체스터필드 코트'는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을 100% 사용했다. 고가 브랜드의 제작 공장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재킷 대용으로 코트 착장이 용이한 트렌드를 반영해 사이즈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23만9000원.

서울 강서구는 연말 문화나눔 공연으로 10일 오후 7시 구민회관에서 조이풀(Joyful) 콘서트를 개최한다. 가수 허공의 축하공연에 이어 개그맨들이 학교폭력, 왕따, 학업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을 미지막 축제 라는 연극으로 구성,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7일까지 최대 1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DLS를 판매한다. '월월 DLS 375호'는 만기 금 오후 고시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업이웃옵션 구조이며 1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파파이스는 7일까지 티켓몬스터에서 위키드치킨, 치킨휠레샌드위치, 콜라로 구성된 9300원 콤보를 41% 할인된 5000원에 판매한다. 쿠폰 사용 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여배우 '3인3색' 크리스마스 파티 화보

제시카·박시연·김정은 매력

제이에스티나는 제시카·박시연·김정은의 크리스마스 파티 화보를 공개했다.

럭셔리 & 헬레시의 제시카, 글램 & 시크의 박시연, 로맨틱 & 러블리 김정은 등 여배우들의 각자 다른 콘셉트에 따라 연출한 다양한 제이에스티나 액세서리와 핸드백을 이용한 스타일링은 더욱 화려했다.

화이트, 블랙, 레드의 컬러를 중심으로 선보인 제이에스티나 메리 글리터링 크리스마스 화보는 크리스마스 스페셜 컬렉션 상품들을 함께 선보이며 여배우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화보 속 크리스마스 파티에 각 분위기에 맞춰 제이에스티나의 아이템들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크리스마스 파티 무드에 맞춰 촬영을 진행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의 콘셉트를 잘 나타낸 '메리 글리터링 크리스마스' 여배우들의 파티 화보는 인스타일 12월호와 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이폰5 메탈케이스 '잘 빠졌네'

슈피겐SGP 제품 출시

슈피겐SGP가 선보인 '네오하이브리드EX 메탈시리즈'와 '리니어EX 메탈시리즈'는 테두리를 감싸주는 범퍼 케이스로 아이폰5에 갖춘 듯한 어울리는 컬러감과 뛰어난 플라스틱이 기기의 슬림한 바디와 잘 어우러진다.

아이폰5 블랙과 화이트에 맞춘 메탈슬레이트와 새틴실버 색상을 비롯해 메탈핑크, 메탈블루, 메탈레드 등 각각 6가지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돋보인다.

특히 네오하이브리드EX는 충격 흡수에 강한 실리콘 케이스를 기기에 감싼 후 가볍고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하드 프레임을 덧씌우는 2단 구성 방식으로 기기 보호 기능 또한 충실하다. '리니어EX'는 상단과 하단을 돌출시키는 비대칭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아이폰5의 단자를 획기적으로 줄인 슬림한 두께로 슬림감과 그립감을 높였다.

전국공항여객 5000만 돌파

한국공항공사는 5일 전국공항 이용객이 우리나라 인구수인 50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영서와 선물, 기념 사진 촬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숙학원 수강생 모집

14명의 EBS 강사와 온라인 스타 강사들이 직접 강의하고 운영하는 비상에듀 직영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은 재수선행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개강일은 16일이며 8주 과정이다. 문의 031)585-1379

한샘이화생기숙학원은 예비고 1·2·3학년 대상 윈터스쿨 수강생과 재수선행반을 모집한다. 윈터스쿨 개강일은 30일이며 재수선행반 개강은 25일이다.

문의 031)565-1387

비상칠종메스기숙학원에서 재수선행반과 겨울방학특강반을 모집 할 예정이다. 기숙학원의 강사진이 24시간 공부, 생활 관리를 통해 성적 향상과 공부 습관의 개선을 책임진다. 문의 1644-9777

강남하늘학원에서는 예비고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윈터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윈터스쿨은 수능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2)556-9001

을지대학교는 7일 각계 인사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캠퍼스(미도구 죽우산로-94) 제2기숙사 증축 공사 기공식을 했다. 신축될 기숙사의 규모는 연면적 3만532㎡(지하 4층, 지상 24층)로서 초고층 기숙사로 건립된다. 내부 시설은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육가공품 경쟁력 강화 손잡았다

농협목우촌·건국대 MOU

농협목우촌과 건국대학교 민상기 교수 연구팀이 4일 육가공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 배경은 육가공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농협목우촌 신기술의 상용화를 2021년까지 수출 1200만 달러 달성에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신기술이전체로 기술이전과 상품화까지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건국대학교 민상기 교수는 "100% 국내산 축산물만 사용하는 농협목우촌과 함께 연구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부가가치의 육가공 기술 이전을 통해 농협목우촌과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말 로맨틱한 추억을 만드세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특별하게 추억하고픈 고객을 위해 '페스티브 시즌 패키지'를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보인다.

연인끼리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페스티브 다이닝 패키지'는 이늑한 디럭스 룸에서의 1박과 객실 내 무료 인터넷,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내 풀장, 수영장, 사우나 무료 이용, 스테이크 하우스 '한쿡'은 그릴에서의 2인 코스 디너와 와인 2잔을 42만9000원부터(세금 봉사료 별도)에 제공한다.

이용 고객에게는 보다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4만원 상당의 캐나다 천연 화장품 브랜드 '후르츠앤패션'의 4종 아로마테라피 아이템을 증정한다.

또한 친구들과의 혜택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준비된 '페스티브 레이디스 패키지'는 3인 기준 35만9000원부터다. 문의 02)2222-8500

What's New

레스모아가 '2012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패션쇼핑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리뉴얼한 레스모아 온라인몰은 나이키, 아이다스 등 각 브랜드의 콘셉트를 그대로 살린 숍인숍 형태로 구성됐으며 제품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의 상세보기 시스템을 구현해 온라인몰 이용 시 느끼던 불편함을 최소화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스킨라빈스는 큐브 모양 아이스크림 케이크 '해피큐브'를 출시했다. 이를 기념해 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점에서 세모난 아이스크림 모자를 쓴 어린이 모델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버거킹은 디저트 메뉴 프로모션 '스낵킹즈'를 5일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스낵킹즈는 간단한 아침이나 점심 또는 이른 저녁을 찾는 고객에 맞춘 메뉴들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GS샵에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집계한 결과 모르간 잡화가 50만 개 가까이 판매되어 1위를 차지했다. '모르간'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판매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국내 TV홈쇼핑에서는 GS샵이 단독으로 전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겨울 여행 시즌을 맞아 31일까지 인기 명품 브랜드들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쌍(1등 1명)에게는 롯데 자이언츠 기고시마 캠프를 방문하고 선수단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스터피자가 '다독이 피자'를 출시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최근 방영되고 있는 CF '미스터' 시리즈를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에 업로드하고 미스터피자 홈페이지에 감상평이나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을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다독이 피자 시식권 500장을 증정한다.

날씨

12/7 金 일출 시각 07:33 일몰 시각 17:13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한서 해하성 피칭원은 이른 아침에 심하게 기침을 하고 거의 모든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반면, 천식은 주로 밤에 또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증상이 발생합니다.

천식지수 / 감기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역 앞 쪽방촌의 겨울

권기봉의 도시산책

연일 한파와 대설주의보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서울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3도까지 떨어진 6일, 집에서 멀지 않은 남산 서쪽의 용산구 동자동을 찾아가 봤다. 서울역 바로 맞은편의 이 동네는 쪽방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쪽방들은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창문이 있다고 해도 가로세로 채 1m가 채 넘지 않는다. 통풍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 보니 한여름에는 실내온도가 바깥 기온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는 한기가 스며들 틈이 적으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 사정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좁은 공간에 작은 방들이 미로처럼 들려 있는 78세의 김모 할아버지의 쪽방 실내온도는 바깥 기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입을 뗄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흘어져 나왔다. 종종 관절염과 고혈압 때문에 몸이라도 녹일까 싶어 근처의 서울역 대합실을 찾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김 할아버지가 전기장판이나 난로를 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1년 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5%나 올라버린 전기 요금과 연상만 될 뿐 떨어지지는 않는 기름값 탓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쪽방촌 거주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다. 이곳 동자동과 바로 옆 갈월동만 하더라도 3~7㎡ 면적의 쪽방들이 약 970여 개나 몰려 있는데, 그곳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만 230명에 달한다. 그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 119만 명 가운데 91만 명은 빈곤층에 해당하고, 질병과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날이 추워도 어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어려워 결국 냉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홀몸 노인들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빈곤 독거노인들에게 요즈음과 같은 추위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요인이다. 한파에 목숨을 잃은 독거노인 소식이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것도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같은 죽음을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빈약한 복지시스템은 탓이 없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8877.com

대학졸업 앞둔 딸아이 걱정 취업 본인 뜻대로 되니 안심

고승객 여자 92년 10월 26일 음력

Q 안녕하세요! 사주 속으로의 애독자입니다. 내년에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는 딸아이의 장래가 걱정이 돼 글을 올립니다. 바로 취업 생각은 없고 다른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취업에 어려움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사주상 애한테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A 따님은 생일지에 식신(食神)의 성분으로 교육이나 남을 위하는 직종도 인연이 되어 동물과는 ... 듯이 하니 본인 취향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롭게 흐르고 관대(직업)를 쳐게 되니 취업도 ...니다. 면접이나 시험 보러 갈 때는 짙은 향수 ... 좋은 화장은 하지 말고 가는 것이 도움이 ...다. 2013년은 부모님께 신경질을 많이 내는 스... 된 해가 되니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한 우물을 파면 성... 동물과 공부를 하다가 측은지심이 생기면 이... 하기도 하는 사주입니다. 아직 어려서 걱정을 ...것은 없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두십시오.

2년 교제했는데 부모님이 반대 "무슨 이유때문일까" 생각해봐야

크렁크릉 여자 83년 2월 15일 음력

Q 2년 정도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합니다. 둘이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하고 서로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 사주에 남자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이 과연 제 인연인지 궁금합니다. 혼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A 귀하는 사주모태법(胞胎法)상 건록궁에 해당되는데 록이 일지에 앉으면 소망이 두텁고 앞에 ...를 이룹니다. 어떠한 곤경도 극복하고 신념이 확고하며 ...자녀는 번창하나 부부 연이 바뀌기도 하니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간여지동(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사주 뿌리에서 솟아 있는 장간(劫干)이 서로 어깨를 끌어내는 형국의 배우자궁이며, 사주에 남자가 귀하니 이성운이 박하고 결혼해서도 남편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두기 어렵습니다. 홍염살(紅艶)로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형인데 중요한 것은 2013년은 결혼보다는 이별하는 운이 강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7일(음 10월 24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자주한 일상에 활력소가 생긴다. 60년생 온으로 해결하려는 생각 버려라. 72년생 힘 들인 공로는 성과로 인정받는다. 84년생 성실하면 행운도 따르는 법~

소 49년생 남의 좋은 일 잘 있어도 하여라. 61년생 확산한 사람이 이상 조짐 보인다. 73년생 이웃과 뜻이 나눌 경사가 생길 수도. 85년생 새로 만난 인연은 갈수록 좋아진다.

호랑이 50년생 마음이 맞은 사람이 사고 친다. 62년생 아쉽더라도 현실에 만족하라. 74년생 공들여온 일이 무산되어 허탈하다. 86년생 생각도 못한 작은이 생겨 즐거운 고민~

토끼 51년생 묵묵히 책임 다한 다음 큰소리쳐라. 63년생 음흉하는 이성은 물리쳐야 한다. 75년생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접어라. 87년생 가슴 뛰게 하는 만남이 있다.

용 52년생 배우자의 마음에 정은 깊어간다. 64년생 운서 일은 자제도하라. 76년생 걱정했던 일을 무사히 마쳐 흡기분하다. 88년생 운세가 열렸으니 욕심을 내봐라.

뱀 53년생 외출이 빗은 반갑게 맞이하라. 65년생 모험적 일을 감행하면 뜻밖한 결과 얻는다. 77년생 길을 텄으면 무라도 쳐라. 89년생 빛나는 성과에 찬사가 요란하다.

말 42년생 마음이 들떠는 소일거리 생긴다. 54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라. 66년생 마음을 좋은 도우미 몰려온다. 78년생 잘자리만은 꼭 가려서 자라.

양 43년생 술과 고기가 넘쳐 입이 호사~ 55년생 자영업자는 일감이 들어난다. 67년생 최선을 다하면 좋은도 따르는 법~ 79년생 생생의 나래를 펼 기회를 잡는다.

원숭이 44년생 감당할 수 없는 약속하면 후회한다. 56년생 불경한 일은 번복하지 마라. 68년생 뒤 따를려 핀 글은 성공한다. 80년생 상사의 충고에 토를 달지 마라.

닭 45년생 고민이 해결되어 몸도 마음도 개운~ 57년생 남을 돕고 감사를 받는다. 69년생 저주는 것이 이긴다는 글 좋심~ 81년생 일이 자신감도 뭉고 여유이 넘친다.

개 4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8년생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접어라. 70년생 동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온다. 82년생 감격의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도.

돼지 47년생 난처한 글은 피하는 게 상책~ 59년생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 즐겁다. 71년생 동료의 충고에 귀기울여라. 83년생 일도 사랑도 승진 날린다.

"창작 뮤지컬 발전에 정부 나서야"

취임 6개월 맞은 유인택 서울시뮤지컬단장

진흥기구 건립과 전산망 시스템 필수
'밥퍼' 대표 창작품으로 성장시킬 것

유인택(57) 서울시뮤지컬단장이 국내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 자기 대통령이 될 후보에게 진지한 조언을 건넸다.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유 단장은 "해외 라이선스 공연의 범람으로 국내 창작 뮤지컬이 고사 직전 상태"라며 "국내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세계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뮤지컬 진흥기구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J정부 시절 매년 400억원씩 4년간 1700억원의 지원과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국내 영화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그 결과 올해 한국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를 2편이나 생산했고, 관객 점유율도 50%를 넘을 정도로 할리우드 영화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문화 예산의 1%만 뮤지컬에 투자하고, 창작뮤지컬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5년 후 국내 창작 뮤지컬은 브로드웨이에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연에는 통합전산망 시스템이 없어 유료관객이 몇 명인지,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 유치도 힘들다"며 "명확한 수치를 잡을 수 있는 전산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배우로 연극무대 첫발 · 영화 제작자로 이름 알려

1980년대 배우로 연극 무대에 발을 디딘 유 단장은 90년대와 2000년대 충무로에서 영화 제작자로 다수의 작품을 히트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화려한 휴가', '목포는 항구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미스터 맘마' 등이 그가 손댄 작품이다. 특히 영화인 출신 1호 펀드매니저로 성공신화를 썼다.

그가 뮤지컬과 인연을 맺은 건 3년 전 가족 뮤지컬 '구름빵'을 통해서다. '40만 명 동원'이라는 흥행 성적을 거뒀다. 이후 뮤지컬 공화춘 연가, '화려한 휴가' 등을 제작했다. 이런 인연으로 서울시뮤지컬단장을 맡았고, 군장대학에서 뮤지컬배우를 양성하는 석좌교수도 겸하고 있다.

단장에 취임하자마자 그는 청소년 경교육 뮤지컬 '호기심'을 제작했다. 지금은 '밥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담은 창작 뮤지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밥퍼)'으로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유 단장은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는 감동 그 자체다"며 "무대에서도 감동을 재연하기 위해 잘 알고 있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각색 작업에 참여시켜 잘 빠진 스토리 라인을 완성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또 "창작 뮤지컬 한 편을 만들려면 수십억의 제작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흥행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국내 뮤지컬 제작자들이 창작품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라며 "공공 기능을 갖춘 세종문화회관이 나서야 할 일이다. 재임 기간 창작 뮤지컬 5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호기 있게 말했다.

이어 "'밥퍼'가 국내 창작 뮤지컬을 대표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 더 화려한 무대로 앙코르 공연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공연 때 관객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창작 뮤지컬 '밥퍼'는 18~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 (02)399-1114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브루클린' 한국색 더해 돌아왔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브루클린'이 국내 초연 후 6년 만에 돌아왔다.

2006년 기존의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음악 장르와 무대 의상으로 사랑받았던 이 작품은 내년 2월 24일까지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무대에서 공연된다.

공연의 원작자이자 작곡가인 마크 쉔펠드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브루클린이 얼굴도 모르는 아빠를 찾기 위해 떠난 미국에서 겪는 시련을 그렸다. 펑크·하드록·팝·가스펠·R&B 등 여러 장르의 노래와 높은 솔 이상의 음역을 오가는 가창력으로 관객에게 보는 것뿐 아니라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연 멤버인 김소현·문혜영·홍지민·강필승의 뒤를 이어 이번엔 난아·박은미·이영미 등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한다. 제작사 오디뮤지컬컴퍼니의 신춘수 프로듀서는 "론소형 뮤지컬을 통해 관객들과 밀도 있는 교감을 나누고 싶었다"며 "초연보다 한국적인 색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1588-5212

/박은정기자 [illegible]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3 What are you doing?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시리즈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역할을 바꿔 가며 말해보세요.

상황 설명 > 혼자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존과 그의 친구가 나누는 대화

A 뭐 하고 있는 중이야 John? Are you waiting for someone?
B No,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 I'm writing an email.
A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건데?
B I'm writing to Mr. Jackson about my vacation.
A Oh, I see. 나도 내 휴가에 대해 생각 중이야.
B Oh, yeah? Where are you going for vacation?
A I'm not sure yet, but I think I'll go to the mountains.
B That sounds great.

정답 What are you doing / I'm not waiting for anybody / Who are you writing to? / I'm thinking about my vacation, too

생생영어팁

▶ I'm going home now VS. I'm going home for Christmas.
나는 집에 가는 중이야 vs. 나는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거야

똑같은 I'm going home이지만 두 문장이 가리키는 시기는 확 다릅니다. 앞 문장 I'm going home now는 대개 "지금 집에 가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일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또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도 되고요.

한편 뒷문장 I'm going home for Christmas.는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고향 집으로 갈 거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말할 때 be동사/일반동사에 -ing를 붙여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어떤 경우가 계획을 말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건 now나 for Christmas처럼 앞뒤 말의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답니다!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Once Ms. Cohen had examined the detailed business plan, she was more ______ to the idea of investing in the new company.
(A) convinced (B) receptive
(C) generous (D) plausible

02 ______ of the passengers on flight 246 missed connecting flights in Dublin as a result of the weather delay.
(A) Everybody (B) Someone
(C) Whom (D) Several

01. 코헨 씨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새 회사에 투자하는 계획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 되었다.
해설 빈칸 뒤의 전치사 to와 함께 '~에 대해 수용적인, 받아들이는'을 의미하는 형용사 (B) receptive를 써야 한다.
어휘 examine 면밀히 검사하다 detailed 상세한 be convinced of ~을 확신하다 receptive 수용적인 generous 관대한 plausible 그럴듯한
정답 (B) receptive

02 246편의 일부 승객들이 날씨로 인한 연착의 결과로 더블린에서 연결 항공편을 놓쳤다.
해설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뒤의 명사 passengers를 받는 부정대명사로 사용되어 '~ 중의 몇몇'을 나타내는 (D) Several을 써야 한다.
어휘 miss 놓치다 connecting flight 연결 항공편 as a result of ~의 결과로 delay 지연, 연기
정답 (D) Several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Question 7에 답변하기

7번 질문의 예

When does the first session start?
Where are the talks being held?
What time is the interview going to begin and where will it be held?

Q When is the meeting and where will it be held? 회의는 언제이며, 어디서 열리나요.
의문사 When과 where을 보아 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표에서 찾아, 올바른 전치사를 사용하여 답변합니다.

When	Saturday, April 23rd
Where	Community Room of Emlenton Library

A The meeting will be held in the Community Room of Emlenton Library on Saturday, April 23rd.
회의는 4월 23일 토요일에 Emlenton 도서관 커뮤니티룸에서 열릴 것입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ybm.com 02)2000-0515

김성근 "구단 사리사욕 버려라"

10구단 창단 미루는 프로야구에 쓴소리 조아제약 공로상

국내 첫 독립야구단인 고양 원더스 김성근(70·사진) 감독이 프로야구의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6일 열린 2012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그는 "아직 (야구계에)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일찍 공로상을 받았다"며 웃었다.

이어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는 10구단 창단 작업에 대해 작심한 듯 일침을 놓았다.

그는 "1년간 바깥에서 프로야구를 보니까 700만 관중에 너무 도취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야구는 지금 쥐가 속에 있다"고 진단하며 "야구인들과 야구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언젠가는 다시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올해 안에 10구단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 속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KT의 10구단 창단 선언에도 현재 10구단 창단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1월로 예정된 골든글러브 시상식 전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사회를 열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할 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올해 고양 원더스를 이끌며 무려 5명의 선수를 프로 구단에 진출시키는 '기적'을 일궈낸 김 감독은 "우리 팀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선수들로 구성됐다. 소외된 선수들이 세상의 빛을 보려면 기적이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선수가 프로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에 가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를 키우고 싶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몸값 낮추려면 단기 계약하자"

보라스, 다저스 계속 압박

류현진(25·한화·사진)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LA 다저스에 단기 계약을 제시했다.

지역 신문인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6일 "다저스의 다년 계약을 거절한 보라스가 대신 단기 계약을 다저스 구단에 수정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라스는 "이 제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류현진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류현진이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다저스의 3선발 투수로 뛸 수 있다. 당연히 3선발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장기 계약을 하면 2006년 일본인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가 보스턴과 계약할 때 받은 6년 5200만 달러(약 560억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보라스의 역제안에 대해 네드 콜레티 다저스 단장은 즉답을 피했다.

한편 류현진과 다저스의 협상 마감시한은 10일 오전 7시(한국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공문을 주고받은 시점(지난달 12일)을 기준으로 협상 만료일이 30일 후인 12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LB 사무국이 공문 접수에 앞서 KBO 쪽으로부터 지난달 10일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협상의 효력이 생긴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데드라인도 10일로 앞당겨졌다.

/김민준기자

메시 "너무 아파"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둔 리오넬 메시가 6일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벤피카전에서 상대 골키퍼와 충돌해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다. /AP 연합뉴스

골키퍼와 충돌 메시 단순 타박상

최다골 대기록 경신 '이상무'

대기록을 앞둔 골잡이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부상을 당했다.

메시는 6일 열린 벤피카와의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 상대 골키퍼 아르투르와 충돌하며 왼쪽 무릎을 다쳤다. 심한 통증을 호소한 그는 결국 들것에 실려나가 부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왼쪽 무릎 바깥쪽에 단순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왔다. 바르셀로나 대변인은 메시가 10일 치러질 정규리그 레알 베티스 원정 경기에도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함께 올해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오른 메시는 세계 처음으로 4연패에 도전한다. 특히 올 한 해에만 84골을 넣으며 1972년 게르트 뮐러가 작성한 한 해 최다골 기록(85골)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벤피카와 0-0으로 비겨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첼시는 노르셸란(덴마크)을 6-1로 완파했지만 샤흐타르 도네츠크에 상대 전적에서 밀려 조 3위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F조의 바이에른 뮌헨은 바테(벨라루스)를 4-1로 꺾고 1위(승점 13)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김민준기자

반기문 총장 IOC 올림픽훈장 수상

반기문(68·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훈장 금장을 받는다.

IOC는 6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틀간 열린 집행위원회 종료 후 반 총장을 올림픽훈장 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림픽훈장은 IOC가 1975년 제정한 상이다. IOC는 올림픽 발전과 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공헌한 인사를 선발해 금·은·동장을 수여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고 김택수 대한체육회장, 고 박세직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김영삼 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등이 올림픽훈장을 받았다.

반 총장은 올해 런던올림픽 때 성화 봉송에 직접 참여하고 올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제정된 서울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김민준기자